

악기 뛰어 넘은 '목소리'의 감동



가장 위트있는 멤버가 누구냐는 질문에 멤버들이 세컨 바리톤 '닉 애슈비'를 지목하고 있다.

공연 리뷰 ACC 슈퍼클래식 킹스 싱어즈

칭아한 고음...천상의 화음 남성 6인 아카펠라 정수 선보여 "우린 조금 덜 색시한 영국 BTS"

아카펠라 공연에는 관용적으로 '천상의 목소리'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그럼에도 '킹스 싱어즈'의 하모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천상의 목소리'라는 표현을 인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펼쳐진 '2023 ACC 슈퍼클래식 킹스 싱어즈'는 아카펠라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굵직한 베이스 토대 위에 바리톤, 카운터 테너로 이루어진 화성음들은 어떤 기악도 인간의 목소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공연은 한국어 곡, 안무, 만담 등이 곁들여지는 '쇼콰이어(종합극)' 형식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킹스 싱어즈 본연의 색채를 느낄 수 있어 이채로웠다. 월트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 디즈니 대표곡들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곁들여졌다.

본 공연에 앞서 예술극장에서 만난 킹스 싱어즈 여섯 남자들은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꾸밈 없는 모습이었다. 1968년 창단한 킹스 싱어즈는 그래미, 에미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그라모폰 클래식 명예의 전당에 오르며 수많은 음악적 유산을 남겨 왔다.

아카펠라 앙상블의 매력을 묻자 세컨 카운터테너 에드는 "음과 음을 중첩하면서 소리를 블렌딩할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을 위해 수년 만에 한국을 찾았는데, 어젯밤 광주에서 거리음식을 맛보는 등

즐거움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각 멤버를 악기에 비유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질문"이라며 "빛대보자면 패트릭은 플루트, 나(에드)는 오보에, 줄리안은 클라리넷, 브루어튼은 첼로"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닉을 호른, 조나단을 더블베이스에 빗댔다.

또 '광주일보'가 킹스싱어즈를 한 줄 캐치프레이즈로 홍보한다면 어떤 문구가 어울릴 것 같냐는 질문에는 "조금 덜 색시한 '영국판 BTS'"라며 웃어 보였다.

이윽고 본 공연이 시작되자 패트릭(카운터테너)이 광주 공연의 소회를 '한국어'로 말했다. 이어 패트릭의 고음이 터져 나왔고 청아한 음색은 플루트 선율을 듣는 듯했다.

악곡 전환에 재치, 불루지한 분위기가 흐르는 토마스 윌크스 '당신의 영광의 왕'도 울려 퍼졌다. 이전 곡과는 달리 조나단(베이스)의 중후한 목소리가 곡을 주도하면서 분

위기를 반전했다. 곡의 종교적 색채로 인해 성스러운 느낌도 느낄 수 있었는데, 애초에 '아카펠라'가 작은 성당 안의 기도실(cappella)에서 부르는 기독교 풍의 노래를 일컫는 만큼 크게 이질적이지 않았다. 멤버들이 대부분 성가대 출신이라는 점도 인상적.

현대인들을 위한 사유의 공간을 주제로 한 곡들도 울려 퍼졌다. 재난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히사이시조의 'I was there'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아픔을 환기시켰다.

영국에서는 블랙 유머가 주를 이루지만, 이날 킹스 싱어즈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위트도 담겨 있었다. 죄르피 리케티의 '배나무 위의 빠꾸기', '길고도 슬픈 이야기', 휴고 알프벤의 '그리고 그 처녀는 동글게 춤추네' 등을 부를 때는 입으로 다양한 효과음을 냈는데, 재치 있는 모션까지 곁들여져 흥미로웠다.

이날 공연장에는 중장년 관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디즈니 음악을 감상하러 온 가족단위 관객들도 눈에 띄었다. 닉과 조나단이 주도하는 발랄한 분위기의 곡 '덤보', 알라딘 OST '알리왕자'를 부를 때는 연기까지 결합돼 이색적이었다.

영광곡은 '아리랑', BTS의 '전하지 못한 진심'. 우리 고유의 레퍼토리와 세계적 인기의 대중가요가 공연장을 수놓으며 막을 내렸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신명이 춤 춘다 '광산농악 한마당'

광산농악보존회 28~29일 농악 시연·체험·콘서트 등 다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농악'의 유구한 전통을 계승하는 한바탕 축제가 펼쳐진다.

광산농악보존회(이사장 박병주)는 '광산농악 한마당' 축제를 오는 28~29일 하남동 광산농악전수관에서 연다. 농악 시연부터 체험 코너, 농악과 인문학을 접목한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광산농악 시연 사시사철 굿 이어'를 볼 수 있다. '도둑잡이굿'을 주제로 굿을 시연하는데, 탈을 쓰고 진행되는 익살스러운 대화가 중심이 되는 풍자극이다. 마을사람들이 공동체정신을 훼손하는 도둑을 잡으면서 화해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담았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악 그것이 알고 싶다'도 참가할 수 있다. 그동안 농악은 제례악이자 노동의 힘들을 덜어내는 유희악, 액을 막는 벽사 등으로 기능해 왔다. 이같은 의미를 하나씩 느낄 수 있도록 '수수께끼를 맞춰라', '깃발싸움', '액막아라', '도둑잡아라', '들노래 한자락' 등이 펼쳐진다.

'광산농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놀이판' 코너도 있다. 연주단 다드락, 광산농악전수교육관 설복반, 일면풍물놀이패 등 농악을 전수받고 있는 단체들이 신명을 풀어낸다.

이밖에 '인문학콘서트 농악'에서는 광주시 무형



탈을 쓰고 '도둑잡이굿'을 시연하는 장면. <광산농악보존회 제공>

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 이수자 한석중이 '잡색(놀이꾼)'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법고장신 농악 콘서트'는 29일 다드미 팀의 '쌍재복춤 그 위에 꿈을 싣고',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개똥이와 무등산 호랑이' 연희극이 예정돼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기억과 시간, 존재에 대한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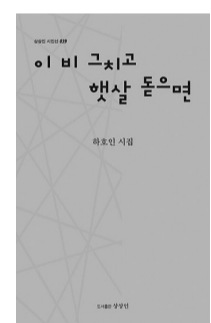
광주 출신 하호인 시인 시집 '이 비 그치고 햇살 돌으면' 발간

"오래 걸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주름지고 늙어지는 것들 그대로 따뜻하게 다독여 주고 싶습니다. 어린 꽃잎 한 송이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 담담히 견디는 위로가 있듯 누군가에게 그런 언어로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말이 따뜻하고 깊이가 있다. 시인은 낯은 것들 그리고 어린 꽃잎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담담한 위로의 언어를 시로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광주 출신 하호인 시인이 시집 '이 비 그치고 햇살 돌으면' (상상인)을 펴냈다.

'달아난 못', '골리앗의 도시', '흰빛을 터트리는 아침', '맹물의 속성' 등 모두 50여 편의 시들은 기억과 시간, 존재에 대한 단상 등으로 풀어낸다. 시의 전환에 흐르는 예민하면서도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는 시인의 성정이 발현된 결과물이다.

조선의 시인은 "번잡한 세속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조용하게 몸부림친다. 말을 세우는 정신이 울곧다"며 "시의 완성도를 위해 느낌과 감성을 전략화하지만 시에 갇히지 않으려고 모호함과 고리타분함을 배척한다"고 평한다.



"자두꽃 핀 골목길 돌아 가면 그리운 빈집// 서까래는 기울고 벽이 허물어 지면서/ 손한 두 눈만 껌벽이는 게으른 손처럼, 열린 봉창으로 바깥만 내다보고 있다// 손대지 못하고 미루던 일들로/ 뼈만 남은 집/ 구석구석을 쓰다 듣는 바람// 파킨스병을 앓던 부실한 다리로 오르내릴 때/ 흔들리던 몸을 단단하게 지지하던 빗마루가/ 어머니의 기억과 함께 부서지고 있다..."

위 시 '흔들리며 피는 집'은 빈 공간이 '어머니의 기억'으로 대체되고 있다. 눈 앞에 펼쳐진 집을 바라보는 화자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또렷하다. 흔들리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억은 화자의 내면에 드리워진 어떤 심지처럼 보인다.

한편 하호인 시인은 2018년 '시에'로 등단했으며 '시에', '시꽃피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예술교육·공연 전문가 역량 강화

ACC, 12월5~18일 워크숍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와 공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워크숍이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ACC

와 대만에서 열리며, 영국의 빅토리아 앤드 엘버트 박물관과 대만의 국립가오슝아트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먼저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ACC 국제회의실(12월 5일부터 7일까지)에서 진행된다. ACC와 V&A가 공동으로 기획한 'V&A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ACC에

맞춰 단기간 교육과정으로 기획했다.

공연예술기획 및 무대기술 분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한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I'은 대만의 공연예술기관인 국립가오슝아트센터의 강연장과 공연장에서 열린다. (12월 8일부터 18까지) 한편 이번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의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I(공연예술)'의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